제 332 호 1991년 11월 24일 창간 1998년 5월 24일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 행 인: 이 종 윤 발 행 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 - 3 전화 (02) 517 - 7651 ~ 5 팩스 (02) 512 - 1225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도전!
킴치(KIMCHI)신학세미나 29, 30일 개최

국내 거주 선교사 대상 제주 이기풍 목사기념관서

제 9차 킴치신학세미나 두 번째 세미나가 29일(금) - 30일(토) 열린다.

한국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주한 선교동역자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이번 제9차 킴치신학세미나는 우리 교단(예장) 소속 선교사 30명을 초청한 가운데 제주도 이기풍목사(한국교회 최초 선교사) 기념관에서 열리게 됐다.

이날 세미나의 강의는 이종윤 목사가 "한국교회영성과 기도운동"을, 민경배 박사(연세대)가 "한국교회 신앙의 뿌리" 각각 담당한다. 이번 세미나는 예장통합측 선교동역자 위원회와 KIMCHI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서울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Korea Institute for Mission & CHurch renewal International)이 주최하는 킴치신학세미나는 매년 한 차례 개최되는 데 올해는 두 차례로 나눠 열기로 했고 첫 세미나는 지난 달 유니온교회당에서 열렸다.

킴치신학세미나는 세계의 목회자들에게 신학적인 재충전과 영적인 각성의 기회를 부여하여 자국복음화에 기여케 하기 위해 지난 1990년 유럽 7개국 목회자 초청을 시작으로 시작됐다. 이후 이 세미나는 매년 개최되어 지금까지 중국어권, 힌두교권, 아프리카, 러시아, 모슬렘권 그리고 오세아니아와 아시아 등 세계 52개국의 목회자들이 참여했다.

특히 이 세미나는 1996년 2월 세계 로잔(Lausanne)중앙위원회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최선의 전략으로 인정받아 주최기관인 서울교회의 킴치(국제선교와 교회갱신 한국연구원)가 로잔의 공인기관으로 인준받았다. 로잔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리더십 개발과 흩어져 있는 복음주의 단체들과의 동반자적 협력을 최우선의 과제로 하는 운동이다.

예년과는 달리 주한 선교동역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던 한국과 한국교회에 대한 주한 선교사들의 이해와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간에 교제의 폭을 넓혀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내주 장로선출 공동의회

다음 주 제 5대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개최된다.

이날(31일) 공동의회는 찬양예배 후 개최되며 투표를 통해 최대 10명의 장로를 선출하게 된다.

장로 후보는 지난 주 찬양예배 후 열린 특별제직회에서 투표를 통해 20명이 선출됐다.명단은 3면>

공동의회에는 우리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석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참석자는 후보자가 기록된 용지에 10명을 표시하여 투함하면 된다. 투표는 1회만 실시된다.

장로 후보 자격은 총회헌법 6장 40조에서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고 무흠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라야 하며 "본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상당기간 헌신 봉사한 실적이 있는 자,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8 홍해작전 개요

- 기 간: 1998년 6월 6일(토) ~ 6월 25일(목), 20일 간 새벽 5 ~ 6시
- 승전감사예배 :1998년 6월 28일(주일) 찬양예배 시
- 주 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요17:17)
- 표 어: "일어나라 함께 가자!"(막14:42)
- 행동강령: 1. 모두 함께 기도하며 국가 위기 극복한다.
  2. 온전한 헌신으로 주의 전을 세운다.
  3. 경건과 절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한다.
- 새벽기도회 강사: 이종윤 목사

찬양대원 세미나 내달 6일(금) 개최

찬양위원회(위원장 윤봉준 장로)는 찬양대원의 영적 성숙과 음악적 자질향상을 위해 다음 달 6일(토) 찬양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홍해작전 새벽기도회가 끝나는 오전 6시에 시작하는데 아침식사, 찬양, 예배, 강의와 워크숍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오전 11시에 폐회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게 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성법, 교회합창의 실제 등 교회음악 전반에 관한 특강과 찬양실습을 할 예정이다.

이 세미나의 참석대상은 찬양대원 전원이며 찬양에 관심있는 성도는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이사야 강해

이사야의 소명

신명기 6장 4 - 9절, 22장 8절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장면이면서 동시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야 이리 오너라"고 하시지 않고 "누가 내 일을 할까? 누가 내 심부름을 할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이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는가를 생각하며 거리낌없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1.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기 위해 사람을 찾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것만큼만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실 때 먼저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사 6:1 - 7).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과 구태여 상의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실 때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할 일꾼을 선택하실 때 아주 신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말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셨고 이사야는 즉시 응답을 했습니다.

(1)들을 귀가 있었던 이사야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겼다는 것이며, 이 말은 이사야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성전에 옷자락을 가득히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이사야가 영접한 것이고 주님 앞에 순종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2)미래를 바라본 이사야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한 것은 천국 복음을 위하여 모든 역경과 모든 핍박을 다 견디고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3)준비된 이사야

준비된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은사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쓸만한 사람에게는 우선 은사를 주시며 또한 은사를 개발하도록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같이 빠른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을 빨리 준비해야 하고 준비한 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두려워 떠는 이사야의 입술을 화저로 지져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용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준비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응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소명을 받는 데는 항상 이런 신앙적 기초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소명과 사명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하나님의 일을 할 자를 신중하게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무엇보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2.사명을 받은 이사야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이사야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하는데 소명을 받은 사람은 사명에 철저해야 됩니다. 사명감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소명을 받은 이사야는 즉시 "여기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소명을 받은 이사야에게 즉각적으로 이와 같은 사명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이사야는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기 때문에 가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로 하여금 억지로 일하게 하지 않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정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쓰임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완전한 중생의 체험을 하고 그 열매를 확실하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실 줄을 믿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실 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세운 사람에게는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반드시 주십니다.

이사야와 같이 소명을 받고 사명감에 투철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사 6:8 - 13)

이종윤 목사

제5대 장로후보 명단

1. 박두호

2. 서문석

3. 하영수

4. 임훈규

5. 왕경래

6. 노송성

7. 이번생

8. 윤천오

9. 홍성주

10. 임상헌

11. 민순구

12. 박정선

13. 허희철

14. 조정식

15. 김일용

16. 김세재

17. 이관규

18. 박두영

19. 전인화

20. 신용식

■…지난 주일 특별제직회에서 장로 후보 20명을 선출했다. 선출된 후보의 출생연도, 임직연도, 봉사부서, 직업, 학력 그리고 가족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음 주 공동의회에서는 발표된 20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10을 투표하여 2/3 이상 득표자 중 득표 순으로 10명을 장로로 선출하게 된다. 세례교인은 공동의회에 참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번호	이름	출생년도	임직연도	봉사부서	직업	학력	가족	교구
1	박두호	1949	1994*	중등부 부감, 베들레헴찬양대원, 선교회 회계	사업/(주)유일특수지 대표	고졸	한성옥 집사와 1남 1녀	7
2	서문석	1947	1994*	제직회 서기, 관리부 부서기, 베들레헴찬양대원	공무원/노원구청 총무과	대졸	한춘홍 집사와 2남 1녀	8
3	하영수	1943	1994*	장년부 부감, 건축위원, 다락방장, 베들레헴찬양대원	사업/(주)제중건설 대표	고졸	박정순 권사와 2남	2
4	임훈규	1942	1994*	스데반회 간사, 베들레헴찬양대 지휘, 중등부 교사, 목회자세미나 봉사	회사원/(주)한진사업전무이사	대졸	정경자 집사와 1남	4
5	왕경래	1938	1994*	재정위 계수 및 감사위원, 다락방장, 사랑부교사, 베들레헴찬양대원	대학강사/단국대, 강원대	대학원졸	김정희 권사와 1남 2녀	11
6	노송성	1943	1994*	유년부 부감, 다락방장	회사원/(주)대한항공 상무이사	대졸	이영옥 집사와 1남 1녀	3
7	이번생	1943	1997*	청년부 부감, 베들레헴찬양대원	재향군인회 정책국장	대학원졸	박경희2 권사와 2녀	12
8	윤천오	1938	1994*	사랑부 부감, 베들레헴찬양대원, 목회자세미나 봉사, 다락방장	자영업	고졸	홍재식 권사와 1남	10
9	홍성주	1946	1994*	남선교회 연합회장, 재정위 계수위원, 바울4회장, 다락방장	교사/동대문상고	대학원졸	여현진 집사와 2녀	8
10	임상헌	1952	1994*	베들레헴찬양대원, 베드로6부회장, 법률상담, 다락방장	변호사/법무법인 보람 대표	대졸	서희숙 집사와 3녀	12
11	민순구	1938	1983†	6교구장, 구제위 회계	서울교회 전 사무국장,	대졸	이영희6 권사와 2남 1녀	6
12	박정선	1945	1994*	할렐루야찬양대 지휘	교수/단국대 음대 학장	대학원졸	김남순 집사와 1녀	11
13	허희철	1947	1994*	가브리엘찬양대 지휘, 다락방장	회사원/(주) 희승산업 이사	대졸	이연숙 집사와 2남	1
14	조정식	1949	1994*	할렐루야찬양대부대장, 베드로4부회장, 베들레헴찬양대원	사업/대원에너지 대표	고중퇴	김영식 집사와 1남 1녀	8
15	김일용	1930	1994*	소망부 부감, 모세선교회 총무	회사원/우일해운 이사, 의항선 선장	대졸	김옥남 권사와 2남 1녀	5
16	김세재	1948	1994*	새가족부 부감, 베들레헴찬양대원, 순례자편집위원, 다락방장	회사원/금화스포츠 대표이사	대학원졸	이운진 집사와 1남 1녀	4
17	이관규	1948	1994*	유치부 부감, 베들레헴찬양대원	사업/대용축산 대표	·	이순영 집사와 1남 1녀	9
18	박두영	1936	1997*	재정위 계수위원, 교구위 서기, 다락방장, 9교구 간사	사업/성재산업 대표	고졸	전행자 권사와 2남	9
19	전인화	1930	1991※	제 2권사회 고문, 상조부장, 지역장	주부	·	강종심 집사와 4남	1
20	신용식	1952	1997*	가브리엘찬양대 부대장, 찬양위 회계, 베들레헴찬양대원	사업/(주) 르본 대표	대졸	김신영 집사와 2남	10

†표는 장로 장립연도, * 표는 안수집사 임직연도, ※ 표는 권사 임직연도

가족 사랑과 화합의 열띤 경연

지난 22일 가족찬양대회

지난 22일(금) 가족찬양대회가 1층예배실에서 열렸다.

5월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족들의 사랑과 화합을 다진 이 자리에는 가족창 7개 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벌였다.

참가팀들은 찬송가나 복음성가 중 자유곡 1곡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심사기준에는 음악성, 표현성, 태도, 청중들의 반응 등이 포함됐다.

심사 결과에 따라 믿음상, 소망상, 사랑상이 결정됐으며 시상식은 6월 중 찬양예배 시 갖게 된다. 수상자 중 믿음상을 수상한 가족은 찬양예배 시 성도들 앞에서 특창의 기회도 갖는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가족들은 각 가정의 음악적인 잠재력을 계발하고 발표하는 기회가 됐고 특히 대회 준비과정에서 가족 사랑을 확인하고 더욱 돈독히 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킴치 동문회 총회 18일 개최

한국교회갱신연구원(킴치) 동문회 총회가 18일(월)오후 5시 30분 강남YMCA 3층 그릴 및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 회장에 차정운 목사가 선출되었으며 부회장 김상은(선민침례교회) · 박정호(양떼교회) · 박태정(새예루살렘교회) · 손명철(태백중앙교회) · 이만호(인천충현교회) · 차명숙(헤브론교회) 목사, 총무 김철남(예닮교회) · 김진열(민족교회) 목사, 협동총무 박귀환 목사(서울교회), 서기 차장호 목사(주님의교회), 회계 임홍식 전도사(광림교회), 감사 박민영(십자성교회) · 정동수(세광교회) 목사가 임명됐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동문회는 1994년 3월에 창립되었으며 동문회원의 자격은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이 주최하는 목회자신학세미나 네 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에게 주어진다.

◆ 각 부서 이모저모 ◆

◇ 대학부= 31일(주일) 오후 1시에 '밥퍼주는 사랑' 이라는 책의 저자인 최일도 목사를 모시고 특별강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관심있는 성도들의 동참을 환영한다. -이승헌-

순례자 칼럼

주님 왜 우시나이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시던 주님, 왜 울고 계십니까.

"여자여 울지말라"고 하시며 마리아의 눈에 눈물을 거두고 희망과 기쁨을 갖도록 권면하시던 주님의 눈동자에 왜 눈물이 가득히 고이셨습니까.

주님, 배신의 쓴잔을 받으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던 주님이 오늘 한국 땅에 높이 세워진 당신의 십자탑을 바라보시면서 자랑스럽기보다는 오히려 면구스러워 울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라기보다는 값싼 축복이나 소원하는 이기적인 교회라면 '차라리' 하는 마음마저 드셨기에 참고 또 참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토록 슬프게 보여진 것입니까.

불신과 불의와 불충의 죄를 진 한국의 교회들을 진리로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옵소서.

■ 제 13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❾ 5월 25일 -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목회자의 가정과 교회 관리 (이연옥 서울여대 이사장)

❿ 6월 1일 -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윤 목사)

동정

◆이종윤 목사는 25일(월)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에서 특강하며 29일(금) - 30일(토)엔 킴치신학세미나에서 강의한다.

◇오늘 점심식사는 김인순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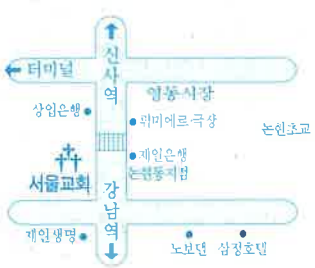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제 9차 킴치신학세미나와 13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2.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3. 하나님의 택하신 일꾼을 바르게 선출할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